



## “남구, 주민 삶을 최고의 가치로...”



남구는 주민 삶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나섰다. 내달부터 보육료와 양육수당이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대연동 한누리어린이집 원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남구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주민의 삶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과 사업을 추진 한다.

### 경로당 신설·리모델링

남구는 먼저 경로당을 신설하고 개·보수 해 지역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꾀한다. 지난해 경로당 3곳을 이전, 신설하고 40여 개소를 리모델링한 남구는 올해도 11억4,500만 원을 들여 감만2동 11동 지역 경로당 등 2곳을 신설하고 용당경로당 등 5곳을 이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용호4동 삼호경로당 등 시설이 오래되고 낡은 경로당을 보수한다. 한편 노령연금에 물가상승률과 정부 방침에 따라 4월부터 인상될 전망이다.

###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남구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오는 3월부터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아동에게 월 22만원에서 39만4000원까지 지

원내 무상보육이 가능하게 됐다. 또 어린이 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는 0세는 20만원, 만1세는 15만원, 만2세~만5세까지는 10만원씩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양육수당은 지난해까지 차상위계층 가정의 0~2세 아동에게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수혜 범위를 확대해 0~5세 모든 계층에 지원된다.

남구는 올해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이번 달 말까지 사전 접수해 3월부터 시행한다. 보육료 지원은 동 주민센터와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신청한 다음 금융기관에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지급된다. 양육수당은 동 주민센터와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신청한 후 매달 25일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된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607-4342

### 교육지원사업 추진

남구는 올해도 저소득층 자녀 교육구입비를 마련하기 위해 교육지원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한다.

남구청과 남부교육지원청 직원의 천원미만 자투리 봉금을 모으고 1구좌(5,000원) 이상 기부금 모금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참여 기관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주민홍보활동을 강화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남구는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 부산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 150명에게 각각 25만원씩 모두 3,750만원의 교육구입비를 지원했다.

남구는 또 ‘현 교복 모으기’ 사업을 추진하며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나섰다.

남구는 지난 18일부터 저렴한 가격에 교복을 구입할 수 있도록 중·고등학교 현 교복 모으기 사업을 벌이고 있다.

초·중·고 교육비도 지원한다. 남구는 지난 18일부터 저소득 학생 중 법정 수업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원수별 소득 인정액이 지원기준 이하인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비 지원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내달 8일까지 서류를 갖춰 동 주민센터를 찾으면 된다. 고교 학비는 물론 학교급식비와 방과후자유수강권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607-4322

### 복지현장 체험의 날 지정

남구는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을 ‘복지현장 체험의 날’로 정하고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차례대로 방문, 시설 현황을 보고 받고 시설 종사자와 이용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는다. 이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행정을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그 첫 행사가 지난 18일 용호종합사회복지관과 해곡실버타운 등 5개소에 열렸다. 이날 남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은 시설관계자와 이용주민을 만나 시설의 전반적인 현황을 보고받고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체험의 날 행사는 오는 11월까지 10개월간 북지관 6곳과 경로당 13곳, 어린이집 10곳, 기타 시설 13곳 등 모두 42곳의 사회복지시설에서 계속될 예정이다.



해파랑길 관광안내소 개소 해파랑길 관광안내소가 지난 1일 남구청장과 시·구의원,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갖고 문을 열었다. 동해안 탐방로 시작점인 오륙도 인근에 위치한 안내소는 전망대와 휴게시설, 관광정보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다.

## 자랑스러운 구민상 후보자를 찾습니다

애향·봉사·효행 등 6개 부문, 내달 31일까지 접수

남구는 남다른 애향봉사 정신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고 깊은 효심으로 화목한 가정을 이끌고 있는 주민을 표창하기 위해 ‘자랑스러운 구민상’ 후보자 추천을 받고 있다.

일반상은 애향·봉사·효행부문이며 특별상은 교육·치안·소방부문이다. 추천대상은 오는 5월1일 현재 남구 3년 이상 거주자(일반상) 또는 근무자(특별상)이다. 일반상 부문은 동장이

나 각급 단체 추천 또는 일반인 20명 이상의 연명으로, 특별상 부문은 남부교육청교육장(교육), 남부경찰서장(치안), 남부소방서장(소방)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접수는 2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이며 방문 및 우편으로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구청, 동주민센터 또는 남구청 홈페이지(www.bsnamgu.go.kr)를 참고하면 된다.

남구는 서면 및 현지 확인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중 인터넷 홈페이지와 개별 통지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5월에 개최되는 오륙도 축제 개막식에서 열릴 예정이다. ☎607-4112

## 금연구역 시설 전체로 확대

대형음식점 공공기관 등서 담배피우면 과태료 10만원

지난해 12월8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으로 금연구역이 시설 전체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 관리자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해당 시설 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전체 금연구역 해당 시설은 150m

## 남구 스토리텔링 홈페이지 오픈

남구가 지난 15일 스토리텔링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지역의 문화·역사 스토리텔링과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남구는 남구만이 가진 문화·관광자원을 기반으로 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영화·뮤지컬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이번에 홈페이지를 오픈하게 된 것. 홈페이지는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야기마당에는 남구민속회에서 조사한 민속과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게재돼 있다.

스토리텔링 항목에는 남구 관련 스토리텔링과, 공모전수상작이 e-book형식으로 정리하고 있다. ☎607-4071, www.bsnamgu.go.kr/story/story.php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면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 남구신문 기사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 주민 일자리 창출 **오륙도 휴 카페** 문열어

구청 민원실 내 입점... 민원인 휴식공간 제공 ‘호응’

남구가 저소득 주민을 바리스타로 채용,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남구는 지난 1일 구청 민원실 내에 커피전문점 ‘오륙도 휴 카페’를 열었다.

이번에 문을 연 카페는 총 사업비 5,500만 원을 들여 청사 2층 종합민원실 내에 33㎡(10평) 규모로 지어졌으며 남구자활사업센터가 운영을 맡고 있다. 카페에서는 민원인과 직원 등을 대상으로 커피와 차 등을 시중가의 절반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사업을 통한 수익금 전액은 자활사업기금에 적립, 저소득 주민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에 사용된다.

남구지역자활센터는 카페 개소를 앞두고 커피사업단을 신설, 기초생활수급자 4명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전문학원에서 바리스타교육을 이수토록 했다.



남구가 저소득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커피전문점 ‘오륙도 휴 카페’를 지난 1일 개소했다.

남구는 카페 운영을 통해 저소득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구청을 찾는 민원인에게는 또 다른 휴식공간을

제공, 편의를 돕고 있다.

한편 남구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커피전문점 이름을 공모해 ‘오륙도 휴 카페’로 선정했다.

조을홍 기자

## 남구, 부산 최초 민원인 권리현장 제정

최상의 행정서비스 받을 권리 알리며 책임행정 다짐

남구는 지난 1일부터 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누려야 할 권리를 알려주는 민원인 권리현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부산 최초로 시행하는 이 제도는 모든 주민이 민원서비스를 받고,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 민원인이 OK할 때까지 서비스 받을 권리를 해당 민원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남구는 지난 1일부터 민원서류 발급 창구에 민원인 권리현장을 게시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의 이름을 밝히는 표찰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 지도단속·현장민원 담당자의 연락처와 민원인 권리, 부조리신고센터를 알리는 명함을 제작해 사용하는 한편 권리고지 미이행시 보상금 지급 등의 다양한 민원시책을 펼치고 있다.

남구는 이와 더불어 제도의 빠른 정착과 공정한 민원처리 확립을 위해 주민참여 ‘민원암행 점검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시로 권리고지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민원처리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토록해 민원불만 사항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남구는 지난 1월 ‘남구 민원인 권리현장’을 제정하고 청사 일구에 권리현장 게재 및 구민소회함, 친절·불친절함을 비치하는 등 소통과 공감할 수 있는 열린 민원서비스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남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민원현장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서 민원인의 권익신장은 물론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607-4262

**발은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발, 발목 질환이나 부상은  
**부산고려병원 족부클리닉에**  
맡겨보세요!

진료과장  
**김 대 경**  
정형외과 전문의

진료과장  
**강 영 훈**  
정형외과 전문의

24시간 콜센터  
**1670-3119**

지하철 2호선  
대연역 3번 출구앞

보건복지부지정  
**정형외과전문병원**  
지정기간 2011.11.1~2014.10.31

**부산고려병원**  
KOREA HOSPITAL  
대한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30130-충-38655호

**무지외반증(바선발 기형)**